호남석유화학, 가격 반등 "김칫국"

동부증권, 석유화학 반등으로 매출 증가 … 성수기에 재고 확충도

호남석유화학의 2012년 1/4분기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.

동부증권은 "호남석유화학의 2011년 4/4분기 영업실적이 부진했으나 2012년 1/4분기에는 석유화학제품 가격 반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"이라고 1월25일 발표했다.

동부증권 김태희 연구원은 "호남석유화학의 2011년 4/4분기 매출액 3조6992억원, 영업이익 2020억원으로 추정한다"며 "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망치인 2211억원에 비해 약 8.6% 줄어든 것은 중국 긴축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및 석유화학제품의 비수기 진입 때문"이라고 강조했다.

또 "최근 석유화학제품 가격의 반등으로 2012년 1/4분기 매출액 3조9709억원, 영업이익 3602억원으로 개선될 것"이라며 "2011년 4/4분기 말부터 PE(Polyethylene), 부타디엔(Butadiene), MEG(Monoethylene Glycol) 등 주력제품 가격이 반등했고, 반등추세가 중국 춘절 이후 성수기 진입 및 재고확충 효과로 더욱 강해질 것"이라고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20>